

# 귀 있는 자 들어라 '이고득락'의 위대한 법문을



6 태안사, 적멸의 편안함이 여여하니

극성 태안사는 구산선문 가운데 동리산문의 본찰입니다. 태안사 부도밭은 일주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일주문을 넘어서서 잠시 망설입니다. 절 뒤편에 있는 적인 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부도 '조륜정정탑(照輪淨淨塔, 보물 제273호)'을 먼저 참례하느냐 눈앞의 부도밭을 먼저 둘러보느냐 살짝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인 선사 혜철은 동리산문을 연 개산주이고 부도밭에 온전히 부도가 전해지는 광자 대사(廣慈大師) 윤다(允多 865~945)는 적인 선사의 손자뿐이니 말입니다. 이것도 견문생심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부도밭을 먼저 둘러봅니다. 푸른 대숲을 배경으로 펼쳐진 부도밭에는 3기의 석종형 부도와 광자대사의 부도(보물 제274호)를 포함한 2기의 팔각 원당형 부도 그리고 광자대사탑비 한 조각, 빗들은 잃어버린 광자대사탑비의 귀부와 이수(보물 제275호)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대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껴들어 부도에 긴 검푸른 이끼들이 불하게 빛을 발하는 듯 귀해 보입니다.

부도의 전형인 팔각원당형은 도의 선사의 제자 열거화상의 부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선 '팔각원당(八角圓堂)'이란 이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의 전당(殿堂)이 원형이라는 데서 유래 합니다. 목조건축에서 완전히 둥근 형태의 집을 짓기가 어려우므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팔각형의 집을 짓고 원당형으로 본 듯합니다. <불교대사전>에도 '8각8등(八角八層)은 이미타의 삼매야행으로 미타와 관음의 전당은 대개 8각이며 8각당을 원당이라 함은 8각이 거의 원형인 까닭이다. 관음의 정도 보타락가산이 8각이란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미타와 관음은 동체(同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의 유골(사리)을 안장하는 부도는 미타선인과 관련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묘표이고 그 전형이 팔각원당인 것은 선사가 입적해 이미타국토로 갔음(혹은 가기를 원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뒤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석종형은 범종이 종생계에 깨달음의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는 법기(法器)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송유역불의 시대에 석종형이 일반화 된다는 것은 팔각원당형의 조형 수법이 치밀하고 공력이 많이 드는데 비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선택된 양식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태안사 일주문 옆 부도밭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이승에는 어디에도 완전한 적멸(寂滅)의 공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에도 중생이 죽어 묻히지 않은 곳은 없다"고 하셨듯이 중생의 번뇌가 완전하게 사라진 곳은 없는 것입니다.

봉두산 정상 쪽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들니다. 관세음보살의 손길이 그렇게 찬란하게 다가와 부도를 어루만지는 것 같습니다. 부도 옆에는 깨진 탑비의 조각 하나가 시멘트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빗들을 잃어버린 귀부와 이수가 포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이 합착과 전체적으로 활달한 기상이 뿜어져 나오는 귀부는 당당합니다. 이수는 잠으로 현란합니다. 극락세상의 새 가릉빈가의 펼쳐진 날개는 금방이라도 창공을 날아갈 것 같은데 그만 머리 부분을 누가 때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친 채 날지도 못하고 부도밭에 남아 있는 가릉빈가는 언제 종생계에 깨짐의 노래를 들려주려는지요.

팔각원당형의 광자 대사 부도는 조각이 매우 수려합니다. 지엄한 입금의 분부와 큰스님의 덕화를 가슴에 품고 한껏 솜씨를 부리는 석공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광자 대사는 고려 태조의 존경을 받았고 태안사를 당대의 '큰절'로 중흥시킨 장본인입니다. 신라 제48대 경문왕 5년(865년)에 태어났습니다. 비문

부처와 마음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묻되, "부처님께서 어떤 경지를 지나서야 이 열반에 이르게 됩니까?" 답하되, "부처님은 지나가는 과정이 없으며 마음도 또한 그대로일 뿐 경과함이 없습니다." 묻되, "집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난세를 구제하기 위해 흥포한 무리들을 주살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민생을 잘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답하되, "전하께서는 오늘의 문은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국가가 부강하고 민생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묻되, "대사는 어떠한 덕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까?" 답하되, "신승(臣僧)은 힘이 없어 자신을 구제할 수 없었지만,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까?"

배알문(拜謁門)은 작습니다. 선원을 지나 열댓 계단을 올라서서 배알문을 들어설 때는 저절로 허리를

## 동리산문 연 적인 선사 부도 균형미 '일품'

광자 대사, 고려 태조에게 조연 "지금 마음 변하지 않으면 민생 행복"

## 빗돌 사라졌어도 비문 사본으로 행장 전해져

에는 '순산함이 마치 가을에 서리를 맞은 썸바귀가 쉽게 뽕하듯 산고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모친에 대한 효성과 전생부터의 불연(佛緣)을 참으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종대의 신하 손소(孫紹)가 찬한 광자 대사의 비문에는 스님의 행장(行狀)이 잘 드러나 있는데 비는 없어졌어도 그 빗돌에 새겨졌던 글은 <한국극적전문>에 남아 있습니다. 광자 대사는 혜철 선사의 적손으로 손자뿐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라 도선의 제자라는 의견도 있고 "□여(□如) 스님의 제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비문을 해석하는 데 얽힌 글자가 판독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는 견해의 차이인 듯합니다.

광자 대사가 고려 태조의 초치를 받아 궁으로 들어가 나눈 대화는 오늘날의 위정자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경전 이 그 설한 시간을 '일시(一時)'로 하여 관념을 초월한 시간을 상징하듯 큰스님의 진철한 가르침도 시대를 초월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나라 무제와 탈파 스님이 대면해 나눈 대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한 왕건과 윤다 스님의 대화를 읽습니다.

입금이 묻되,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대사가 답하되, "만약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이는

속이게 됩니다. 문턱은 없지만 높이가 낮고 폭이 좁습니다. 배알문 안쪽은 적멸의 공간입니다. 둘러쳐진 담 바깥은 대숲이어서 서걱서걱 바람이 맷잎을 흔들며 대지지만, 적인 선사 혜철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 담 안쪽은 고요합니다. 안개가 물러서고 햇살이 가득 들어차서 동안 아침인사를 나누는 새들의 웃는 소리가 요란하지만 그 소리가 시끄럽기 보다는 고요를 더 깊은 고요로 침잠시키는 듯합니다.

아직 꽃을 피우진 않았지만 붉은 꽃잎을 머금고 있을 동백 망울들이 속삭속삭 때를 기다리는 소리도 적멸의 부도밭을 더욱 근엄하게 해 줍니다. 그러한 절대 고요의 공간에 적인 선사의 부도가 계단(戒壇)처럼 준엄하게 서 있습니다. 적인(寂忍)이라는 시호, 세사사를 다 건디어 내고 절대고요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 부도밭에 꼭 맞는 가르침입니다. 신라의 경문왕은 적멸의 즐거움을 누리려 떠난 혜철 선사를 부러워했나 봅니다.

부도는 화려함을 억제하고 전체적인 균형미를 극대화 했습니다. 한 수행자가 우주법계를 무너뜨리고 남을 진리의 원음을 몸 가득 채우고 앉아 자비의 향기를 뿜어내는 듯합니다. 그래서 조륜정정탑은 바라보기만 해도 몸속의 오욕칠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부도와 탑비 그리고 그 뒤로 선원의 지붕을 지나 아스라이 겨울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생의 눈과 귀에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 고



배알문 안쪽으로 보이는 적인 선사 조륜정정탑. 엄격한 균형미가 압권이다.

요한 부도밭이아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적인(寂忍)의 힘'을 전해주는 도량이고 허공을 가득 채운 저 아침나절의 새소리는 적인 선사가 들려주는 법문이 아닐런지요.

선사의 탑비 앞에 서서 1100년 전에 우뚝했던 수행자의 향훈을 그려 봅니다. 적인 선사 혜철 스님을 수태한 어머니는 위와와 모양이 엄숙하고 우아한 어떤 호승(胡僧)이 법복 차림으로 향로를 들고 서서히 와서 침상에 앉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열다섯 살에 출가해 부석사에서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한 번에 다섯줄씩을 읽어 내려가는 총명함이 드러나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불교계의 안자(顔子)'라는 칭을 들었다고 합니다.

814년(헌덕왕 6년) 가을에 중국 땅으로 구별의 길을 재촉한 혜철 스님은 중국 선종의 정맥을 이었습니다. 기이한 암시를 보이며 태어나고 일찍이 출가하여 남다른 수행의 예봉(銳鋒)을 보이다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종의 본맥을 받고 대륙의 성지들을 유력(遊歷)하다가 귀국, 동리산문을 열고 교화의 장을 열었던 혜철 스님. 77세를 맞이한 이른 봄, 2월 6일 제자들에게 "만물은 봄에 나고 가을에 이별하나 나는 그와 반대다. 앞으로는 너희들과 선(禪)"을 말하고

도를 맞볼 수 없을 것이다"하고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비문에는 '돌아갈 때에 들짐승이 슬피 울부짖어 산과 골짜기가 모두 흔들렸으며, 갈가마귀와 참새가 모여들어 모두 슬피 울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월 보름 무렵, 선사가 입적한 초봄의 기운이 감도는 태안사 적인 선사 부도밭에는 여전히 새소리가 요란합니다. 다만, 그때의 새소리는 선사의 입적을 슬퍼하는 소리였고 오늘의 새소리는 만생의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선사의 법륜일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라. 여기 태안사 배알문 안에서 적인 선사 조륜정정탑을 휘감아 도는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위대한 법문을.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조, 이지원,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서사>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연구소, 둘째. <통사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사아문. 등.

## 사업장의 법구 금강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기에도 흥황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집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현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를 왕및 사업변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미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원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목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근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목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책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품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 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           |           |                          |
|-----------|-----------|--------------------------|
| 1929년생 뱀띠 | 1957년생 닭띠 | 1985년생 소띠                |
| 1933년생 닭띠 | 1961년생 소띠 | 1989년생 뱀띠                |
| 1937년생 소띠 | 1965년생 뱀띠 |                          |
| 1941년생 뱀띠 | 1969년생 닭띠 | * 적색 글씨에 해당되는 문은 약삼재입니다. |
| 1945년생 닭띠 | 1973년생 소띠 |                          |
| 1949년생 소띠 | 1977년생 뱀띠 |                          |
| 1953년생 뱀띠 | 1981년생 닭띠 |                          |

##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집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둡고 고통

속에서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 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리드리며108염주인 사팔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능)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